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9

제자들에게 들어보니 우리 대학 학생들 사이에는 소위 ‘관악타임’이라고 부르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군요. 서울대생들이 친구와 약속을 했을 때 정시에 약속장소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얼마간 늦게 나타나는 일이 자주 벌어지다 보니 이걸 관악타임이라고 부르는가 봅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늘 약속시간에 꼭 맞춰서 나가는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늦게 나가는 것이 일종의 버릇처럼 되어, 아예 정시에 나갈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시간 약속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편입니다. 제자들이 증언해 주겠지만, 난 언제나 정시에 수업에 들어가 정시에 끝나치고 나옵니다. 학생들과 약속이 있을 때도 반드시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내 제자들은 선생인 나와 약속에서도 시간을 어길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정이 있어 늦는다는 연락을 미리 해주면 그런대로 이해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말도 없이 약속시간을 훨씬 넘겨 불쑥 나타나는 경우에는 좀 화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뒷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약속시간은 꼭 지켜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난 출석을 부를 때 지각을 한 사람을 결석으로 처리하는 원칙을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날 원망하는 눈초리로 쳐다보지만 절대로 그 원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강의시간도 일종의 약속시간이니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을 때 강의실에 들어와 이리저리 빈자리를 찾아다니면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각한 사람을 엄하게 다루는 점도 있습니다. (지각한 사람이 문 옆의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찾아 바로 앉으면 수업에 주는 지장을 최소화할 테지만, 그런 매너조차 없는 학생도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아 강의실을 휘젓고 다니는 학생이 가끔 있는데, 그런 학생 보면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출석뿐 아니라 리포트 제출과 관련해서도 나는 기한 엄수를 매우 강조합니다. 리포트를 A, B, C로 등급을 매긴다고 할 때 하루 늦을 때마다 한 등급씩 깎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내용은 A 등급을 맞을 수 있는 리포트라도 사흘 뒤에 제출하면 C도 못 받아 0점으로 처리된다는 말이지요. 좋은 리포트 만들어 제출한다고 시간 끄는 것보다는 약간 엉성한 리포트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학생들이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해 바보같이 감점의 비극을 당하더군요.

많은 학생들이 날 매우 까칠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며칠 전 어떤 학생이 찾아와 말하더군요. 자기 선배는 내가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내가 교수들 중 비교적 까칠한 편에 속한다는 건 구태여 부정하지 않습니다. 난 교육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학생들이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잔소리를 서슴지 않는 편이니깐요. 예를 들어 수업 중에 휴대폰 받으려고 화장실 가는 척하고 자리를 뜨는 학생이 눈에 띄면 꼭 뭐라고 해줍니다. (예전에 학생 게시판 봤더니 화장실 가는 자기에게 뭐라 했다고 나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학생이 있더군요. 정말로 화장실 가는 학생도 있겠지만, 십중팔구는 모두 휴대폰 하려고 화장실 가는 척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각이나 기한 위반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나름대로 교육적인 목적을 갖

고 있습니다. 학생 때부터 약속시간을 엄수하는 버릇을 키워두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믿음 때문이지요. 최근의 신문 보도에서 이와 같은 내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사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온라인 취업포털이 국내 532개 기업을 대상으로 면접관들이 어떤 사람을 ‘비(非)매너 응시자’로 보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답니다. 이 물음에 대해 최악의 비매너 응시자로 지적된 것은 ‘면접시간에 늦은 지원자’(61.8%)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도 ‘회사에 대한 기본정보도 모르는 지원자’(52.1%), ‘연봉 등 조건만 따지는 지원자’(44.3), ‘면접에 적합하지 않은 차림의 지원자’(42.4%) 등이 비매너 응시자로 지적되었지만, 지각보다는 그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면접관 중 55.4%나 되는 사람들이 비매너 응시자로 판단된 사람을 무조건 탈락시킨다고 응답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에 늦게 도착한 사람은 면접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자동탈락할 가능성이 30%가 넘는 셈입니다. 응답자의 61.8%가 지각을 최악의 비매너로 꼽았고, 면접관의 55.4%가 비매너 응시자를 자동탈락 시킨다고 대답했으니 그런 계산결과가 나온 거지요.

그렇다면 많은 면접관들이 더 자세히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지각한 사람들을 무조건 탈락시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은 아주 작고, 거기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응시자가 면접시간에 늦었다는 사실은 면접관에게 어떤 내용의 아주 강한 신호(signal)를 보냈고 면접관은 그 신호에 따라 그를 주저하지 않고 탈락시켰을 가능성이 큼니다.

일반적으로 면접관이 응시자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는 무척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의 출신 대학, 학점, 따놓은 자격증 정도에 관한 정보만 있을 뿐이며, 그의 인성이나 능력, 자질에 관한 정보는 본인이 작성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기소개서에 쓰인 내용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 부족의 상황에서 회사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면접관으로서는 지각한 사람이 보내는 부정적인 신호가 매우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응시자를 배제해 버려도 아무 뒤탈이 없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시간에 늦은 응시자가 면접관에게 보내는 신호는 그가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적하면 삼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 마디나 작은 낱새에 의해서도 전체의 상황을 재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약속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약속도 잘 지킬 것 같지 않고, 따라서 그는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거의 자동적으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약속은 잘 지킨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 상대방은 그런 항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각한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 지어 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학생들 보면 면접 준비한다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면접 준비가 철저하면 뭘 합니까? 면접시간에 늦게 도착한 것 하나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데요. 학생 때는 지각하고 리포트 기한 지키지 않아도 인생이 뒤바뀔 만큼 큰 벌칙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가는 순간 조그만 게으름이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 다닐 때는 게으르던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해질 수 있을까요? 대학 다닐 때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던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갑자기 약속을 철석같이 지키는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난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사람이 어느 정도 바뀌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바뀌기는 어려운 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살 버릇 여든 살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 때 게으른 습성이 몸에 밴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자칫하면 그 습성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니까 내 충고는 강의시간 꼭 맞춰서 출석하고 리포트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약속은 꼭 지키는 버릇을 학생 때부터 몸에 배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든 꼭 지키는 것을 버릇으로 만들어 두면 약속을 지켜야 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하는 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고민은 생각 밖으로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동안 살아오면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힌 사람들은 그 덕으로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사회에서 훌륭한 성공을 거두더군요.